



▲ 여주시청 정원에 동백꽃 포토존 등장 '눈길' ▲ 전남 여주시가 시청 본청사에 마련한 포토존이 시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여주시는 시청 정원에 동백꽃(사회)과 갈매기(시조)를 형상화한 경관 조명을 설치해 13일부터 일련에 공개했다. 정동 시간은 일몰-저녁 11시며, 내년 3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관조명을 최소화했고, 조형물을 세워 수목의 생육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 여수/이남숙 기자

알림 문화매일 전국주재기자 모집

전국종합일간지 문화매일에서는 적극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본지는 서울시 금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사세 확장으로 인하여 함께 일할 참신한 인재들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

1. 전국 광고국 임원 특별대우
2. 채용인원: 전국 주재기자 및 본부장급 (전국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3. 응시자격: 학력 성별 나이 무관 (경력자 우대)
4. 접수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5. 접수기간: 채용 완료시 까지
6. 채용방법: 직접 면접 (통신 면접도 가능)
7. 접 수 처: 총무국 (02)2612-2959 fax (02)2060-4147
8. 전 화 문 의: 대표전화.1899-9659 H.P. 010-6440-9898

경북도, 내년도 국비확보 위해 다시 달린다!!

경북 2020 혁신성장 아이템 발굴 최종보고회 개최 지역 R&D 기관, 과학산업 국비확보 위한 과제 발굴

경북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우현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지역의 17개 R&D 기관장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2020 혁신성장 아이템 발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 2020 혁신성장 아이템 발굴'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산업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경북형 과학산업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2020년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추진되어왔다. 이를 위해 지역의 17개 R&D 기관이 모두 참여했으며, 특히 정부의 5대 핵심 투자 분야인 D.N.A와 BIG3 산업에 중점을 두고 2개 분과(D.N.A 분과 / BIG3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 지속적인 토론·정보 공유, 협업을 통해 신규 과제 발굴에 힘써왔다.

Kick-off 회의(9.17.)를 시작으로 지난 3개월 간 총 24개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정부정책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경북 2020 혁신성장 아이템 발굴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형자동차 첨단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미래형자동차의 핵심 소재 기술 개발 및 국산화 추진, 자동차 소재·부품 밸류 체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제라 어려움 겪고 있는 경북 자동차산업의 제도약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V반도체 소재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은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EUV 반도체*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EUV 플랫폼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통한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북형 트윈팩토리 오픈 플랫폼 구축사업', '5G 대응 제조산

업 클라우드 인터스트리 플랫폼 구축사업', '경북 4D프린팅 기반산업 활성화사업' 등 경북의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다양한 과제들이 발굴됐다.

한편, 최종 선정된 과제들은 경상북도로부터 연구개발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과제 기획 단계를 거친 후 결과물을 토대로 2020년 국비 확보 및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국비 확보는 지역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자 촉매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찰, 화성 8차사건 당시 관련자 입건

담당검사경찰관 등 8명 입건
명칭도 이춘재연쇄살인사건으로

경찰이 그동안 30여년 동안 불렀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와 관련된 당시 수사관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2부장)은 17일 오전 본청에서 가진 7차 브리핑에서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반 본부장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및 담당검사 등 8명을 입건했다"며 "이 가운데 이춘재

8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당시 형사계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반 본부장은 또 초등생 김양 실종사건에서 피해자 김모양(당시 9)의 유골 일부를 발견했음에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히 판단된다는 이유로 형사계장 등 2명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반 본부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건별 수사결과와 당시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재분석해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할 것"이라며 "수사본부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당시 수사과에 대해 한 점의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내년 2월28일부터 엄마·아빠 함께 육아휴직 가능

내년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

능해진다. 기존 시행령은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에 함께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

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연 최대 10일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도입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을 종료하게 한 기존 시행령과 달리, 근로자가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육아휴직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귀성 기자

'30억' 아파트 공시가 80%까지 ↑

30억원대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80%까지 높아진다. 이 경우 강남에 여러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최대 50%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17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 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89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실화를 제고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20년 가격공시를 통한 부동산 유통별 현실화율은 아파트의 경우 1%p 오른 69.1%, 표준 단독주택은 0.6%p 오른 53.6%, 표준지는 0.7%p 오른 65.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광수 기자

아이들의 은빛설원 지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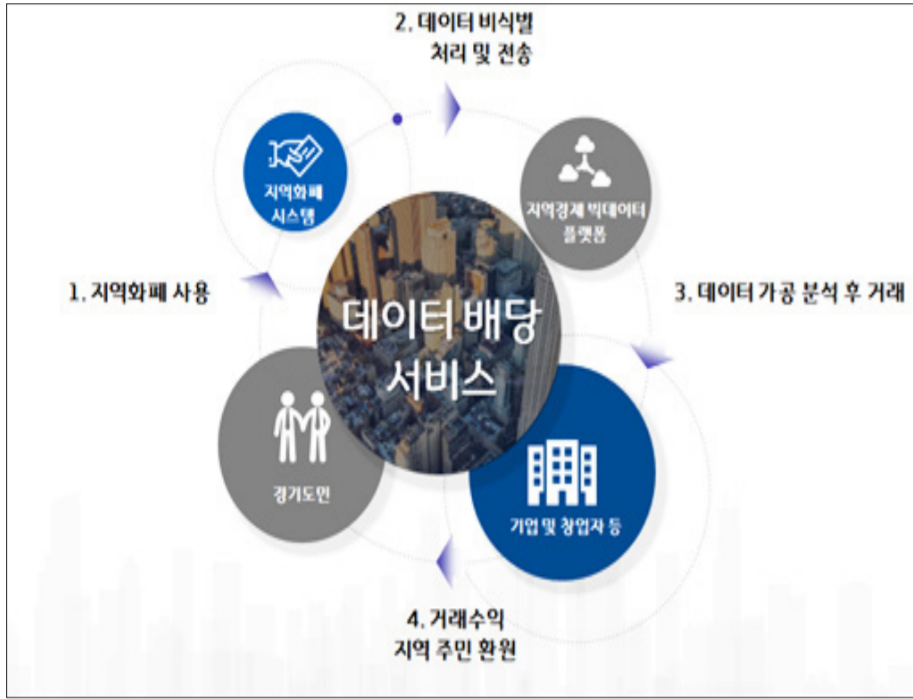
자연 속 겨울나라 낭우원

지리산바래봉 눈꽃축제 2019. 12. 28 ~ 2020. 2. 9

지리산허브밸리 동·동·동화 축제 2020. 1. 11 ~ 1. 27

경기도 '세계 최초' 지역화폐 데이터 배당시스템 구축

지역화폐 데이터 기업·연구소 등 제공, 발생 수익 도민에 환원 데이터 적극 활용 통해 신규수익 창출하는 '데이터 선순환체계'



경기도가 '세계최초'로 지역화폐 데이터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개인정보가 제거된 통계성 데이터

를 연구소, 학교, 기업 등 데이터를 필요로하는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데이터 선순환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데이터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첫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

된다.

도는 지난 5일 한국기업데이터, 지역화폐데이터, 경기신용보증데이터 등 플랫폼 참여기관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제2차 경기도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회'에서 오는 2020년 1월부터 데이터배당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도와 12개 참여기관의(코나아이, 아임클라우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혁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구체화됐다.

데이터 배당 시스템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민이 사용한 지역화폐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비식별 정보로 가공 분석한 뒤 데이터를 필요로하는 연구소, 학교, 기업 등에 판매하게 된다.

이후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화폐시스템을 통해 지역화폐를 직접 사용한 도민들에게 배당된다.

도는 △거래일자 △성별코드(여자:F/남자:M) △연령(30대/40대/50대) △상품ID(수원페이/부천

페이) △주간결제액 △가맹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만큼 경제효과 분석 등을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비식별 정보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생년월일이나 휴대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의 첫 판매예상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크지는 않지만,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화폐시스템을 통해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지역화폐로 배당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의 데이터 생성 기여분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첫 시련대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기여자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 및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융합해 신규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혁신을 위한 중요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김재일 기자

여주시 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사무국 운영 안전통과사업실적공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남 여주시 노·사·민·정이 상생과 소통,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17일 여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하반기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권오봉 여주시장과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김성준 한국노총여주시지부위원장과 신성남 민주노총여주시지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발표, 사무국 운영 여부 결정, 올해 사업 실적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노·사·민·정 대표 14명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에는 '건강한 노사

문화 확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여수기업 우선 이용과 노동자 안전·복지 향상' 등에 많이 씌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무국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지역 노동 분야 현안문제 해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사업 성과로 '근로자 노동상담소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 '노사민정 관계자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꼽기도 했다.

권오봉 여주시장은 "노·사·민·정 공동선언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 함께 힘을 합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여수/이남출 기자

영주시, 경북도 최초 산후조리비 지원한다



인구정책 관련 조례 통과, 내년 시행 산후조리비 출생장려금 별도 지원 등

경북 영주시가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는 등 인구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영주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 조례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을 감안해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마음 편히 조리할 수 있도록 도내 최초로 1회 100만 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또 고등학생·대학생·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대상 전입지원금은 10만

원→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출생 장려금(분할금)은 △첫째아 월 10만 원/1년→20만 원/1년 △둘째아 월 10만 원/2년→30만 원/2년 △셋째아 이상 월 10만 원/3년→50만 원/3년으로 인상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은 100만 원 일괄 지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은 1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장애인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는 결혼·임신, 양육·보육·교육, 일·가정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등을 비롯해 분만 의료기관·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은 많은 예비 부모의 수요층에서 요구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도 조례에 담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조례는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며 "영주 미래 100년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보육부담 없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거제·해양플랜트산업 국비 확보

경남 거제시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위기지역 대체산업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조선·해양플랜트 배관 가공·설치 적용 및 전문가 육성사업'을 완료했다.

국·도비 43억 원을 지원받은 이 사업은 해양플랜트와 해상풍력에 사용되는 배관관련 장비를 구축해 대우·삼성 등 산업계와 공동 활용하고 국제 교육설비 인증과 국제전문 자격증 5종을 발급해 많은 배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하여 다양한 곳에 활동 또는 교육을 해줄수있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현재까지 조선해양플랜트 유관 업체 직원 52명이 이 사업을 통해 배관분야 국제전문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거제시에서는 2020년 산업·고용위기지역 R&D기술개발 공모사업 참여로 KRISO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3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해양플랜트 인슐레이션/시운전 설비·장비 및 국제인증교육장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양플랜트 단열, 시운전 장비 및 국제 공인 인증교육이 가능해 거제시 관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제/최만식 기자

내년 해양분야 전국행사, 경북서 잇따라 개최!!

올해 국제·전국단위 행사 5건 유치 신청 기초 시·군 역량, 광역 지자체 지원이 조화

경북도가 올 한해 4건의 해양분야 국제·전국단위 행사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유치가 확정된 '바다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수산인의 날' 행사, 'AMFUF 총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내년·내후년에 경북 동해안 각지에서 열린다.

경북도는 올해 유치를 신청한 5건의 국제·전국단위 행사 중 '섬의 날' 행사(경남통영개최)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유치했다.

경북에서 전국단위 '수산인의 날' 행사와 AMFUF 총회가 열리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전국단위 '바다의 날' 행사는 2007년 이후 두 번째 유치이며,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2006년, 2010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 개최다. 내년 2020 대구경북관광의 해와 연계해 전국의 관광객을 경북 동해안으로 불러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높은 유치 성공의 배경으로 △경북도의 적절한 컨트롤 타워 역할 △도·시·군간 원활한 업무 공조 등이 꼽힌다.

경북도는 국제·전국행사를 특정 시군이 독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행사 특성에 맞는 시군을 선정하여 유치를 추진했다.

국립해양과학관 개관(내년 5월 예정)에 맞춰 바다의 날 기념식을 울진에 유치하고, 해양 레포츠 인프라가 갖춰진 포항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유치하는 식으로 전략을 짰다.

AMFUF 총회는 국제회의도시인 경주에 예정됐다.

이런 전략과 더불어, 경북도와 시군 간의 공조도 돋보였다.

특히, '바다의 날' 행사는 신청서 작성, 현장실사 대응, PT 발표 등 전(全) 과정을 함께 준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광역 지자체의 지원의지와 기초 지자체의 행사준비 역량이 잘 합쳐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복, 유치는 못했지만 '섬의 날' 행사 준비 과정도 좋은 협력 선례를 남겼다.

경북도는 '섬의 날' 만큼 울릉군에서 단독 행사를 치르려고 했으나, 교통편 등의 어려움을 겪자 포함·울릉 공동개최를 신청하여 지자체간 공조체제를 선보인바 있다.

김남일 경북도 환경해지지역본부장은 "유치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동해를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관광의 해를 맞아 동해안권 5개 시군과 협력해 어촌마을 관광, 미항투어, 해양레포츠 상품 등을 개발, 마케팅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파주형 마을살리기-파평면편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소통이 길이다’ ‘문화가 힘이다’ ‘경제가 답이다’ 등 특색 있는 사업 제시 ‘두포리·마산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자로 주민 생생한 인터뷰 담아



경기 파주시는 올해 7월 각 읍·면에 마을살리기팀을 신설하며 도농복합도시 파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마을, 평화를 품은 마을, 평화 생태 마을 등을 모델로 자치·자립이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다. 파주시 파평면은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살리기의 행정 기준’을 제시하는 파평면은 파평이 최고다 소통이 길이다 문화가 힘이다 경제가 답이다 등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파평면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주민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4억5천만원의 기금을 모아 ‘사단법인 파평참사랑장학회’를 설립했다. 2007년 최초 장학금을 지급했고 현재 대학생 30명, 초·중생 70명 등 총 100명에게 3억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학생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번 선발되면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마을과 지역이 만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파평면의 4개 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0월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5차례의 사전 회의 후 운동회, 축제, 체육활동 등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등을 운영하고자 11월 경기도 최초로 ‘파평마을교육공동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활

터 주민 스스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축제를 기획해 매년 4월 한반도 마지막 벚꽃축제인 ‘엔딩 벚꽃축제’를 추진하고 있다. 20여 년 전, 깨끗한 마을로 선정돼 받았던 포상금으로 밭고지 마을 2km 일대에 벚나무를 심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내년에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추억의 놀이를 마련하고 주민·기업·외국인이 참여하는 농도림패션쇼를 열어 하나 되는 파평면을 그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버려졌던 습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봄이면 황금보리, 가을이면 코스모스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매년 9월 시민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는 ‘파평 코스모스축제’를 7회째 이어오고 있다. 파평면은 울곡습지공원에 제한된 코스모스를 마을안길 및 37면 국도 부체도로 등 마을로 연결해 명실상부한 ‘코스모스 마을’을 구상 중이다.

파평면은 매년 인구가 감소해 10월 말 현재 3천935명인데 군인, 기업 등 관계인구가 정주민만큼 많아 정주민구와 관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파평면에서 태어났으나 학업과 직장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 사람과 파평면에서 군복무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 평화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주민증을 발급해 파평면 소재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농산물 구매 시 할인해주고 축제에 초청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확장할 예정이다.

군인들의 외출·외박 확대와 기업들의 회식 및 휴식 장소 안내를 위해 파평면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제작했으며 내년에는 주민이 전해 들은 파평의 역사, 먹거리·기업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평면에는 58곳의 음식점과 14곳의 숙박시설이 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이 건설한 유일한 교량 복진교를 역사적,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총 96억 원을 투입해 복진교에 스카이워크, 포토존, 보행로 등을 설치한다. 리미고 앞에는 가수 조용필이 젊은 시절 머물며 연주했던 미군클럽 ‘라스트 찬스’가 복원돼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파평면은 관내 마을을 권역 단위로 묶고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대전제로 마을별 특성이나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주민중심 마을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장마루권역인 장파리·금파리 마을은 장단콩 관련 마을기업을 육성해 전문식당에 공급하고 임진강 어선단지 파평선단에서는 임진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전문식당에 공급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먹거리타운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평산권역인 덕천리·늘노리 마을은 파평산과 연계한 마을축제를 개발하고 파평체육시설과 힐링하우스를 연계한 레저문화타운을 구상하고 있다. 밭고지권역인 두포리·마산리 마을은 ‘밭고지 엔딩벚꽃축제’를 주민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정원만들기사업을 연계해 미래지향적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어울림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농촌권역인 울곡리 마을은 토박이·귀촌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신농촌 마을로 육성해 주민의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마을을 살리는 순기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파주/김영근 기자



언론부문 명인대상에 본지 한영래·추동명 수상

한영래 고문, 헌신적 애국심 보여
추동명 주필, 문화예술 창달 기여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대상에서

한영래 본지 고문이 최근 (사)지구촌 문화예술 재능나눔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 12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언론부문 명인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1층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대상’에서 한영래 고문이 참석해 수상자로 상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는 문화예술 창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민국 명인대전 경연대회 대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분야 재능나눔 봉사인 대상 수상자들도 자리를 빛냈다.

또 추동명 본지 주필도 한영래 고문과 함께 언론부문에서 명인대상을 수상해 경점사를 맞이했다.

한 고문과 추 주필은 지구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애국심으로 봉사해왔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대전 경연대회’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어 상패와 표창장을 받았다.

이재만 기자



파평면의 마을살리기는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두포리·마산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자를 제작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끼웠다. 평화를 품은 집에서 제작한 해당 책자는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마을 역사 등이 담겨 있다. 11월에는 사립을 기록하고 마을을 기억하는 밭고지 마을의 1년 활동 기록을 담은 시사회도 가졌다.

파평면 밭고지마을은 올해 8월 행정안전부 2020년 특수상환지역개발사업 선정돼 5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환경개선사업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공동체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거점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업 발전에 공헌한 농·어업인을 발굴하는 ‘2019 파주시 농·어민대상’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부분과 채소·특작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파평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동에 돌입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답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실 입구에 개인 소망이나 건의사항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나무를 설치했고 울곡습지공원 입구의 고목나무 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해 커피잔 모양 의자인 ‘고목나무 찻집’을 만들어 주민 사랑방을 구현했다. 파평면은 주민과 축산농가간 소통단절로 인해 고조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 모여 축산농가와 마을간 상생방안을 논의하며 마을과 농장이 행복한 파평면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평면의 마을살리기는 사실상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것과 다르지 않다.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던 발전 의지와 파주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만나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파평면 밭고지 마을은 3년 전부



제21대 총선 출마 선언하며,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저의 반성과 각오를 너그러움으로 받아 주십시오”

장윤석 전)국회의원 내년 총선 절대 실패 없을 것

“저의 반성과 각오를 너그러움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장윤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지역발전에 올인하는 한편으로 보수로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4선 중진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장윤석 전)국회의원이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인 경북영주시 구성로 321 영장빌딩 1층에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윤석 전)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오직 하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좌편향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먹고살기 어려운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충정뿐이라고 했다.

또,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김장근 선배의원에 이어 영주의 두 번째 3선의원인 영예를 안으며 지난 12년 간 나름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면서도 영주의 품속에서 정치를 시작하여 배우고 성장하였기에 영주는 저에게 어머니이자 스승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3년 전 받은 은혜의 10분의 1도 갚지 못하고 정치를 떠나야

했고, 그 때 정치를 떠나는 아쉬움보다 시민 여러분에게서 받았던 은혜를 다 갚지 못했던 죄스러움이 더 컸다고 했다.

국회의원 12년 동안 “영주의 꿈”은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 “희망이 넘쳐나는 영주의 꿈”을 완성하지 못하고 물러난 저의 부족함을 사죄드린다면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 올린다고 했다.

되돌아보면 12년 동안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서운하게 했던 일 역시 적지 않았던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반성한다.

지난 4년은 자신에게는 아픔이자 성숙의 시간이었다고, 자신을 반성하고 다짐을 하는 한편, 그 농축된 반성과 다짐을 영주를 위해 소진하겠다고 했다.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을 지역선거구로 출마 입장을 밝힌 장윤석 전)국회의원은 올 한 해 동안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지난 의정활동 기간을 되돌아보면서 지역의 현안과 정치상황 등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얻은 가장 귀한 소득은 바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소통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 여러분의 용서와 지지로 영주 초유의 4선의원인 된다면 영주는 물론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중심 정치인으로서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



하고, 첫 원내대표에 진출, 부족하지만 평생 닦고 쌓은 실력과 지혜, 경륜을 바탕으로 보수정권을 반드시 다시 세우고, 기회가 된다면 당대표 또는 국회의장단에 도전해 영주시 출신 정치인의 위상을 높여주겠다고 했다.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 국회의원이 된다면 4선의원인 정치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국회의원 재임 중에 추진했던 점담베어링 클러스트 구축을 비롯하여 적십자병원 운영 개선, 중앙선 복선전철화 조기 준공, 영주댐 가동 정상화, 마구령터널 개통 등 산적한 과제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정치적으로 보다 큰 힘이 필요할 때라며,

지역발전과 정권교체의 중대 전환점이 될 제21대 총선을 5개월 여 앞두고 저는 정치에 입문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윤석 전)국회의원은 자신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관련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입당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역대이러도 연령이나 선수로 입당이나 공천에 불이익을 준 선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돌아갈 곳은 자유한국당 뿐임을 천명하는 한편으로, 보수우파 정권을 재건하는데 다할 것이라며 이번 도전에 실패는 없을 것으로 밝히기도 했다.

영주문경예천/정승초 기자

박지원 "석파울제 국민정서에 안맞아"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석파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민정서에 옳지 않다"며 "저희는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희 대안신당으로서 석파울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저에 대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저는 분명히 석파울제가 설사 합이 돼 국회 통과가 되더라도 석파울제로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다"고도 못박았다.

박 의원은 석파울제에 대해 "지역 선거에 나가 아깝게 떨어지긴 크게 떨어지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떨어진) 중진들은 석파울제로 구제된다고 하면, '저 중진은 낙선하더라도 석파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바람직하다'고 (유권자들이 석파울제 당선 가능 후보가 아닌 상태방울) 선택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석파울제를 반대했던 정의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데 대



해선 "반대 정신이 옳은 것이고 지켜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중진의 비례대표 진출을 위해서 그런 길을 트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4+1 협의체'가 협상 막판에 흔들린다는 우려에는 "흔들린다고 보지 않는다"며 "저는 4+1이 지금 '현재진동 중에 있다' 라는 표현은 좋지 않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귀성 기자

심재철 "선거법 원안 상정에 심상정 반발 코미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발의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반발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자가 당장인데,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의석수 욕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정의 없는 정의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희상 의장이 어제 규탄대회에 우리를 표했다는데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것은 문 의장"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국회로 몰려든 것인데, 이들을 국회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문 의장이야말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팔로우한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 총리가 팔로우한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어울리지 않는 난민법, 북한이탈주민법을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복송한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 가우똥하는 총리한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최광수 기자

"심상정 설득해야"...與, 선거법안 두고 정의당과 '밀당'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정치권이목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 간판 정치인이자 당 대표인 심 대표가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막판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의 추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강도 높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위원회에서 "선거법

안을 두고 상호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합의를 못보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4+1' 협의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협상이 공전하는 원인을 야당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패스트트랙 협상을 두고 군소야당을 밀어낸 이 대표와 달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기기'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4+1 협의체 재가동을 위해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고 모색해 보겠다"고 말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선거법안(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50+50석'으로 조정하고 연동률 50% 적용)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비례 의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동형 캡을 적용할 경우 예상 의석수가 감소하는 정의당이 강경하게 반대하자, 민주당이 '석파울제 반대'로 입장을 선화하며 '밀당'(밀고 당기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석파울제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파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하면 석파울제에 대

민주당 석파울제 반대, 정의당 반발 與, 당대표 '밀고 원내대표 '당기기'

한 바른미래당·평화당·대안신당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영커 있는 것도 아니다. 그간 농촌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온 바른미래당·평화당·대안신당 호남계 의원들은 현행 지역구를 253석에서 250석으로 줄이는 선에서 민주당과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 상태다.

물론 정의당을 빼고서라도 민주당과 호남계 의원들의 의석을 합치면 선거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친여성향 무소속 의원, 민주당은 물론 평화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의 표를 끌어모으면 본회의에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정의당을 '패싱'하더라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정의당은 "이런 거면 정의당도 밟고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귀성 기자

의정부시
UIJEONGBU CITY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의정부는 시민과 호흡하며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포천시,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



자연과 예술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재탄생 남북경협 거점도시의 문화브랜드로 거듭나

경기 포천시는 최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박윤국 시장 및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보고회를 가

졌다고 17일 밝혔다.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2014년 10월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창수면 오가리, 영중면 영송리, 일동면 수입리 일원에 총 17km에 폭 2~3m, 총 사업비 84억 중 국비 37억 원 및 특조금 8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업은 남북이 38선으로 분단된 역사적 사실을 재발견하고 영평전 일대를 자연과 예술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의 역사체험 문화브랜드로 창조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최근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과 전철 7호선 연장사업 등 교통접근성 확대에 발맞추어 38선 영중면 일대의 군사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관광문화의 공간으로 주요 관광 체험시설로 자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보고회에서는 2016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관련부서의 주요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해 지역 현안과 문제에 대해 도의원 및 시의원, 설계 전문위원과 관련부서장 등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해 많은 질의와 의견을 나눴다.

박윤국 시장은 "이번 용역보고회가 우리 시의 체류공간 확충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애정과 관심으로 참석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번 용역보고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김영근 기자

이천시,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 준공식

시민 건강증진·다양한 실내 스포츠 남부권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경기 이천시는 최근 모가면 실내체육관 준공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은 이전 남부권 농촌지역 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시민 건강증진 및 다양한 실내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1월에 착공, 2년여만에 준공식을 갖게 됐다. 준공식은 지역주민들과 관, 지역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굴뚝 없는 청정 모가면의 이미지에 맞도

록 간소하게 진행됐다. 체육관은 총 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되어 건물연면적 850㎡에 목재플로어링 바닥으로 구성된 배드민턴 코트 4면과 탁구, 배구, 농구 등 생활체육 시설로의 활용은 물론 지역의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과 무대를 갖췄다. 임태준 이천시장은 "모가면 실내체육관이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내체육관이 모가면 주민이 언제든지 찾아가 운동도 하고 소통도 하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천/남시현 기자

용인시, 보행약자 위해 도로시설물 개선



19곳 점자·유도블록, 블라드 설치 보행약자 인근 산책로 진입로 개선

용인시 처인구는 17일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지난 11월초부터 도로 시설물 26곳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는 그 동안 일상순찰 중 발견한 곳과 시민들이 건의한 곳 등을 재차 확인해 19곳에 점자·유도블록과 블라드 등을 설치했고 고림동 등 2곳엔 경계석 턱을 제거해 걷기 쉽게 만들었다.

또 도로와 산책로가 떨어져 있던 용인경전철 보행약자 인근 산책로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했고 요철이 있던 횡단보도를 평탄하게 바꾸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이동이 어렵지 않도록 불편구간을 찾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각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문제구간을 개선하는 등 누구나 이동이 편리한 처인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평택시, 바이러스백신접종 완료



경기 평택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인 2006년 출생 여성 청소년의 경우 12월말까지 1차 접종을 해야 2020년에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지속적인 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임으로 예방접종과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서비스를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6년생들은 올해까지 1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해 접종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접종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서둘러 한다.

또한,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매년 접종자가 연초보다 연말에 접종자가 몰릴 수 있어 미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무료접종 대상자들이 적기에 접종 할 것"을 당부하며 학기 중 학업 등으로 예방접종받기가 어려우니 이번 겨울 방학을 이용해 가까운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2006년생 중 미 접종한 여성 청소년에게 안내문자 및 우편물 서비스를 시행 중 이다"고 전했다.

평택/이동원 기자

안산시, 내년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변경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 분류에서 질환의 심각도 고려한 급 분류로

경기 안산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변경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 분류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한 급 분류로 개편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개별 감염병으로 분리·열거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급 감염병에 신규 추가 등

이다. 아울러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해 메르스, 에볼라 등 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 신속한 구두·전화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된 신고 의무를 치과 의사까지 확대했으며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및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를 인지해 미신고 등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산/이승배 기자

경북도, 생명살리기 프로젝트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여

도 안전정책과, 적극 행정으로 이룬 성과 경찰청과 협업, 최초 재난관리기금 투입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큰 폭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는 업무 소관을 뛰어 넘은 적극 행정으로 이뤄낸 큰 성과로 풀이된다.

교통 업무는 교통부서와 경찰청 소관이다. 그러나 경북도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정책과는 안전경북365 포럼에서 경북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서 바로 대응에 나서게 된 것. 안전은 곧 생명이라는 슬로건으로 생명살리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2018년 경북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418명으로, 경기도 659명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3월 4일에 경북경찰청, TBN경북교통방송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고,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10% 이상 줄여 2021년에는 300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 46억 원을 투입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예산 지원, 경북경찰청은 과속카메라 32개 및 무단횡단방지펜스 25개 등 115개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고, TBN경북교통방송은 교통안전 홍보 방송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10월 25일에는 경북경찰청 주관으로 경북도 등 교통안전협의체 12

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를 다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월말 기준으로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58명이 감소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유창근 경북도 안전정책과장은 "공무원이 업무 소관을 따지다 소중한 것을 잃는 경우가 많다.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생명살리기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이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호 기자



번개처럼 빠르게 저장하다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 Thunderbolt™ 3 외장 스토리지

Thunderbolt™ 3 기술과 NVMe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는 전문 콘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눈부신 전송속도를 선사합니다. 슈퍼카를 닮은 세련된 디자인, 첨단 열 처리 기술과 압축 기술로 완성한 최상의 스토리지를 경험해보세요.

* USB 인터페이스 기능만 지원하는 PC에서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Thunderbolt™ 3 포트가 설치된 Macs 및 Window PC에서만 호환 가능하며, 호스트 구성에 따라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Mac OS X Sierra, High Sierra 10.12 또는 그 이상, Windows 10 64 bit RS 2 또는 그 이상) 최대 읽기/쓰기 속도 실험 시스템 환경: Dell Alienware System (Dell 17 Alienware 17 R5), OS - Win 10 x64, CPU - Intel® Core™ i7 8570H@4.1GHz, Memory - DDR4, 16GB 2667 MHz, BM Tool - CDM 5.1.2

X5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세요.

SAMSUNG

가평군, 아람마을 만들기 사업 속도 낸다.



낮은 출산율, 고령화로 무너지는 마을공동체 되살리기 군, 민간공익법인 창립총회 추진 통합지원센터도 지원

경기 가평군이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무너지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람마을 만들기 사업에 속도를 붙였다.

17일 군에 따르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들이 독립적인 중간지원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협의회 법인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을대표들은 올해 안에 민간공익법인 창립총회를 열고 내년부터 독자적인 중간지원활동과 민간법인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도 이를 지원해가며 주민주도의 중간지원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가

시화되면서 본 사업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그동안 전담부서인 회복공동체팀과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마을들의 활동을 지원했지만 마을 수가 늘어나면서 중간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민간법인 설립 추진에 앞서 아람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대표들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 행정과 민간위탁기관의 협력, 민간위탁기관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민간위탁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의 협력, 독자

적인 민간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16개 마을 35명의 마을대표와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견학단은 주민주도로 민간법인을 만들어 중간지원조직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 완주군, 홍성군 등 3개 군 연원장 꽃잔디마을, 행복정거장 농가레스토랑 등을 방문해 꽃을 이용한 마을경관 조성과 소득사업,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순환경제의 선진 사례를 체험했다.

견학단에 참여한 상면 행원2리 류재혁 이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 발전을 열심히 해보고자하는 이장, 마을 리더들이 함께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좋았다”며 “앞으로 민간법인의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2017년부터 주민주도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추진한 아람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26개 마을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2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농식품부 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 2년 연속 경기도 대표 선정 및 장관상을 받는 등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자리 매김하는 한해를 보냈다.

가평/최만식 기자

용인도시공사 직원들 하천환경 정화 봉사



청소사업 등 담당 생활환경부 시정 인근 하천 봉사활동 펼쳐

용인도시공사 생활환경부는 12월 11일 오후 7시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시정 행정타운 입구와 경전철 시청역 인근 급하천변 2km 구간을 청소하는 ‘맑은 천 살리기’ 활동을 실시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올해 부서별 특성애 따른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와 물자 지원, 공익메시지 전파, 취약계층 무료 체육강좌 등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도 처인구 일대의 생활 쓰레기 수거와 용인 전

역의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생활환경부가 지역의 하천을 보호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이루어졌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부장 등 직원들은 업무 지장을 피해 퇴근 시간 이후 두 시간 넘게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직원들은 50kg 넘는 비닐, 낙엽, 페타이어, 공병, 캔 등 각종 폐기물과 불법 투기물 등을 수거하였다. 생활환경부는 내년에도 활동지역을 넓혀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등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용인/남시현 기자

경기 도민 89% 우리사회 갈등 ‘심각’ ‘이념갈등’ 1순위

도민 55%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경기 남·동북부간 발전 불균형’(24%)

경기도가 ‘사회 갈등’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대다수(89%)는 우리사회 갈등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65%는 1년 전보다 ‘심각해졌다’고 답했다.

사회적 신뢰도 부문 역시 떨어지고 있다.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도민의 절반이 넘는 55%가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 역시 41%에 달했다.

특히 이 수치는 매년 감소세로, 2017년 70%에 달했던 긍정 응답은 2018년 60%를 거쳐 2019년 55%까지 3년간 15%p나 감소했다. 도민사회가 점점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사회 갈등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일 것이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20%만 동의했다.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은 것은 △이념갈등으로 도민의 과반 이상(55%)이 1순위로 지목했다.

이외 △빈부갈등(18%) △남녀갈등(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같은 질문에 △빈부갈등(29%) △세대갈등(16%) △이념갈등(15%) 순으로 응답했던 결과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 중 △남녀갈등 부문에 있어 2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을 비교해봤을 때 20대는 31%가 심각하게 인식한 반면 50대 이상은 단 1%에 그쳐 세대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빈부갈등에 대해서는 20대와 50대 이상에서 각각 20%, 17%로 나타나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경기도내 갈등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물음에는 1순위로 △경기 남부·동북부 간 발전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24%)을 꼽았다.

경기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눠봤을 때, 7개 권역에서 1순위로 나타났다. 2순위로 쓰러기 매립지 등 △협오시설 건설을 둘러싼 갈등(16%)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에 인접한 서부인접권에서는 1순위(24%)로 조사됐다.

3순위는 도로노선, 철도역 위치

등 △교통시설 변경으로 인한 갈등(13%)이었다.

이러한 공공갈등 해결방안으로 도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공론화 과정’이 도입될 것이냐는 물음에 도민 62%가 동의했다.

서남권 도 소통협력국장은 “우리사회 갈등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결과”라며 “경기도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중점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갈등을 사전에 방하고, 갈등조정관을 임용하는 등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공공갈등 발생 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와 같이 도민들이 참여하여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공론화 조사’ 도입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민 2,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 2.2%p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평택 ‘주민친화 체육시설’ 만든다

경기 평택시가 17일 시민의 생활체육공간인 레포츠 시설 3곳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레포츠시설 3곳의 노후 시설 개선과 확충 및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19년 4월부터 10개월간 대상 시설에 대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경기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지난 7월 시민의견 조사 및 체육종목 관련 단체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삶과 휴식 문화가 있는 주민친화적인 체육시설’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 중이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에는 물론 전문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시설 조성을 구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완료 후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평택시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이동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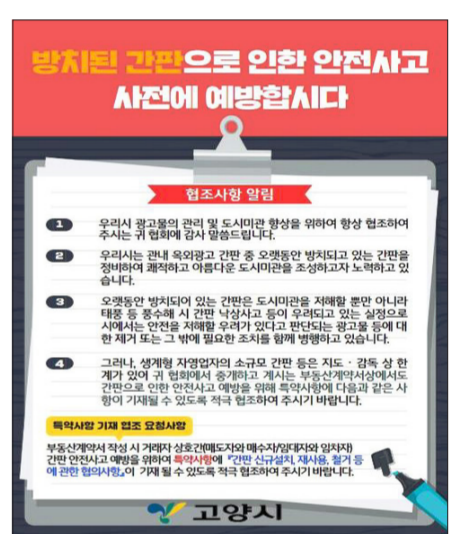
고양시, 방치된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방치된 노후 간판 지속적 정비 나서 안전 저해 우려있는 광고물 등 제거

경기 고양시는 노후 간판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방치된 노후 간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더불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매년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한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자영업자의 소규모 간판 등은 지도·감독상 한계가 있어 부동산계약서상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사항인 특약사항에 ‘간판 신규설치, 재사용, 철거 등에 관한 협의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방치될 소지가 있는 간판이 원천적으로 차



단될 수 있도록 협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적극홍보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고양시 관내 1,8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공조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와 더불어 부동산계약에 관한 전국 프로그램인 전산거래망에서도 이를 널리 알려 부동산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간판에 대한 책임과 안전의식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양/김영근 기자

청정(淨)문화

전원생활 농부도시 봉화

GREEN ENERGY

천혜의 산수와 자연경관이 당신을 반깁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정한 땅을 간직한 봉화...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와 맑고 깨끗한 계곡이
태고의 멋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살아있는 관광지,
새로운 활력을 찾으러 봉화로 오세요!

경기, 시흥시 전국 최대 수도권 해양레저·교육 거점 조성

내년부터 3년간 거북섬 일대 복합단지 조성... 국비 250억 지원 세계 최대규모 웨이브파크·아쿠아팻랜드·해양생태과학관 조성

경기도 시흥시에 전국 최대 규모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도는 최근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공모사업에서 시흥시가 응모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사업이 선정,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도내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유치에 실현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9월부터 진행한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에서 경기도 시흥시와 전남도 보성군에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국비 250억을 지원한다.

시흥시 거북섬 일대는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웨이브파크, 아쿠아팻랜드, 해양생태과학관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곳이다.

도와 시흥시는 계획에 따라 시화호 거북섬 일원을 청소년과 해양레저 입문자들을 위한 체험교육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트 수리정비 취업·창업 기술교육 중심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총 500억 원으로 국비 250억 원 외에 도비 75억 원 시비 175억 원이 투입된다.

안산 시화호 거북섬 1,62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4,555㎡ 규모의 해양레저복합 클럽 하우스가 건립된다.

클럽하우스에는 교육장과 체험실, 장외지원센터, 계류시설 관리실, 해양레저 관련 업종 임대매장 등이 들어선다.

또 해상에는 보트 8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과 40척을 보관할 수 있는 빌딩형 보트 보관시설인 드라이스택을 설치, 총 120척을 계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전국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사고에 대비한 안전체험교육과 해양레저 체험활동을 접목한 프로그램



를 개발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질 높은 체험교육을 2022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 조성되는 복합단지의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과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안산시 방아머리공원 내 조성 중인 '경기도 해양레저안전체험관'의 해양안전체험 교육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 과장은 "민선 7기 도정방침에 따라 경기도 해

양레저안전체험관과 수도권 해양레저 체험·교육 거점 조성으로 도민에게 해양안전사고와 해양레저에 대한 체험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보트 수리정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취업·창업 교육을 지원해 해양레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산업분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승배 기자

의정부시, 행복한 집 만들어주기 23호 추진

쾌적한 환경 제공위한 민관 협력사업 독거노인세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의정부시 자금동 주민센터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독거노인세대에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한 집 만들어주기 23호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행복한 집 만들어주기 사업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집수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번 23호는 태풍 피해로 지붕이 손상되어 어려움이 있는 대상

자에게 자금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연계를 통해 ㈜두성시스템과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자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업을 지붕수리 및 방수서비스를 제공했다.

도움을 받으신 이 모 어르신은 "태풍 피해로 지붕이 손상되어 막막했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국식 자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단체의 활동이 확산돼 더욱 정이 넘치는 자금동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고양시, 유방암 예방·조기발견 위한 업무협약



한세대학교(주)베르티스와 맺어 여성건강 친화사업 발전 기대해

고양시는 국내 발병 1위인 유방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베르티스와 여성건강 친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양시장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베르티스 대표이사,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역사회공헌 및 가족기업 활성화를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협약식에서 윤준영 산학협력단장은 "이제 대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식을 전파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기"며 "한세대학교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글로벌이 아닌 글로벌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작지만 강한 '강소대학'이 되려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베르티스는

기존 유방암 진단의 한계를 보완한 '마스토크'로 고양시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무료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토크란 유방암 여부를 조기에 판정하는 다중 바이오파커 기반 혈액검사법으로 미량의 혈액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0기, 1기, 2기 유방암 진단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 받아 2019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승인받았으며 2019년 9월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기존 유방암 진단의 한계를 보완하는 혈액 검사법으로 간편하게 유방암을 선별할 수 있어, X선 촬영 또는 신체 노출을 피하고 싶거나 고통 없이 간편하게 진단을 받고 싶은 대상자에게 유용한 검사법이다.

이에 고양시는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와 관내 여성병의원 3~4곳을 선정해 취약계층이나 유방암 가족력 등이 있는 특정 여성 300명을 선정해 내년 2월부터 유방암 조기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김영근 기자

수원시 노인 돌봄 서비스, 내년부터 맞춤형으로 시행

돌봄·단기가사지원연계 등 6종 하나로 통합해 66억여 원 지원

오는 1월부터 돌봄과 가사지원 등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맞춤형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전 지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5,800여 명의 대상 노인들에게 66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돌봄·단기가사·자원연계·홀몸 어르신 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 등 6종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신체·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4670여 명의 노인이 돌봄 등 서비스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584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올해 38억여 원에서 내년 66억여 원으로 40% 이상 늘어난다.

서비스 내용 역시 대상 노인의 욕

권역명	해당동	수행기관	연락처
장안1권역	파장동, 용현동, 정지3동	법원노인복지관	271-8859
장안2권역	정지1동, 정지2동, 영희동, 송죽동	SK정술노인복지관	257-6811
장안3권역	조원1동, 조원2동, 연우동	무봉종합사회복지관	243-2852
권선1권역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버드내노인복지관	547-6225
권선2권역	서둔동, 평동, 구운동	서호노인복지관	291-0911
권선3권역	금곡동, 오매동, 입북동	농실종합사회복지관	291-8475
팔달1권역	행궁동, 매곡동, 매산동, 고동동, 화서1동, 화서2동	팔달노인복지관	248-3800
팔달2권역	지동, 우안1동, 우안2동, 연계동	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09-3633
영통1권역	매탄1동, 매탄2동, 원전동, 광교1동, 광교2동	광교노인복지관	8006-7422
영통2권역	매탄3동, 매탄4동,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 영통4동, 영통5동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사회서비스원)	263-1389

구에 맞춰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화된다.

수원시는 서비스 대상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을 10개로 나누고 각 권역을 맡아 사업을 지원할 10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밤밭노인복지관, SK정술노인복지관, 무봉종합사회복지관, 버드내노인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농실종합복

지관, 팔달노인복지관, 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광교노인복지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 10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분산되면서 유사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김재일 기자

양주, 제3기 마을세무사위촉식 개최

양주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양주시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갖고 마을세무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하는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총 6명으로 구성된 제3기 마을세무사는 2020년 1월부터 2년간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 후 전화, 이메일 팩스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어려운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횡단보도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

꼭 기억하세요!

서다 신호를 기다릴 땐 **한발 뒤로 물러섭니다**

보다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피봅니다**

걷다 횡단보도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넵니다**

도로교통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거제시, 겨울바다 진객 거제시어 대구와 함께 한다

제13회 거제대구수산물축제 거제 외포항에서 열려 오는 21~22일, 다양한 수산물 맛볼 수 있는 축제해

거제시는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어인 대구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금년에도 변함없이 거제대구수산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회째로 열리는 거제대구수산물축제는 겨울철 거제를 대표하는 어종인 대구와 청정 쪽빛바다 거제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축제로 오는 21일~22일 이틀 간 거제 외포항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겨울철 진객인 대구를 맛보고 즐기고 함께 체험할 수 있고 거제지역의 다양한 수산물을 홍보하는 물론 조선 산업의 경기불황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민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서로 간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거제대구수산물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거제시호망협의회, 외포청년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경남도 거제시, 수협중앙회, 거제수협의 후

원으로 진행된다.

21일 오후 6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 행사에 돌입하는 대구수산물축제는 경기집체로 얼어붙어 있는 거제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안겨 줄 다양한 색채의 해상 멀티미디어 불꽃쇼와 깜짝경매 대구축제 버스킹 공연 대구 댄스파티 거제대구 7080 공연 연발 러브인 거제문화 콘서트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난해와 같이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개최되는 행사로 축제기간 중 가족과 함께 외포항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거제대구직거래 장터 맨손으로 활어잡기 대구이어달리기 거제수산물 홍보 및 판매 대구 무료떡국 나누기 수산물 캐릭터 포토존 송년 및 신년 체험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

또한 21일 오후 4시부터 식전 공연에는 지역 공연 팀이, 오후 7시부



터 열리는 연발 트로트콘서트에는 김주아, 민지, 명진, 탄따라 패밀리 공연과 22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거제대구 7080 공연과 5시부터는 연발 거제 러브인 문화콘서트가 계획되어 있어 겨울을 만끽하며 여행하는 모든 분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예정이다.

거제 시어 대구는 외포해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거제바다에서 잡히는 대표적 어종으로 매년 12월부터 1월

사이가 그 맛이 최고이며 날씨가 추워질수록 여획량도 증가하고 대구의 얼큰한 국물 맛은 더 깊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거제시 관계자도 전국 대표 축제로 승화, 축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수산물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어업소득증대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거제/최만식 기자

김해시, 새마을부녀회 출산축하 전달 사업

칠산서부동, 올해 '마더박스' 최고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올해 자생단체 사업 중 새마을부녀회의 '출산축하 마더박스 전달사업'이 가장 많은 주민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서 '2019년 참 잘 생겼어요 베스트3 사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1위 출산축하 마더박스 전달사업에 이어 2위 역시 새마을부녀회의 '공한지 꽃밭 조성', 3위는 자율

방법대의 '친환경 연꽃 조성'이 선정됐다.

출산축하 마더박스 전달사업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갈수록 고령화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에 기여했다.

이동희 칠산서부동장은 "올 한해 동 발전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여러 자생단체들에게 감사한다"며 "내년에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 요구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김해/최만식 기자

인터넷 지방세 조화·납부시스템 '위택스'

"공인인증서 필요없이 간편하게" 디지털원패스 적용, 아이디 하나로 다양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 이용 가능

12월 9일부터 인터넷 지방세 조화·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도 디지털원패스가 적용되면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휴대폰의 패턴·지문·안면인식 등 본인 선택한 인증수단을 사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정부24, 온라인 광화문1인가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에 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전자기기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위택스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초기화면에는 다양한 지방세 관련 안내, 지방세 납부하기, 환급금 신청·조회, 지방세 자동납부 등을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히 지방세를 확인·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금융사 앱을 통한 납부 뿐만 아니라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에서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위택스, 정부24, 관련 앱에서 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등 앱 알림으로 스마트폰에 고지서 도착하면 내용 확인 후 휴대폰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경남문화예술회관, 무대예술 인력 양성 업무 협약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학업 지원

경남도문화예술회관과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가 무대예술 인력양성을 위해 최근 경남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날에는 지역공연예술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강동욱 경남문화예술회관 관장과 유영재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문화예술회관은 방학 기간 동안 경남대학교 문화

콘텐츠학과 학생의 전공 및 학업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지원한다.

학교 교육을 벗어나, 실제 공연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대기계와 조명, 음향, 영상 등 장비를 사용해 보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유익한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강동욱 경남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공연예술분야와 관련하여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

다"며, "이외에도 경남문화예술회관은 무대예술 전문인 발굴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유영재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장은 "경남을 대표하는 공연장에서 학생들이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상호 협의하여,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경남도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경남도와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12월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경남도 평생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평생교육 전문가와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 평생교육시설 및 동아리 담당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동안의 평생교육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평생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시상상을 통해 사업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1부 행사는 2019년 한해의 성과를 즐기고, 축하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60+교육센터 수강생의 남도민요 공연과 장애인 실내악단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2부 행사는 올 한해 경남지역 평생교육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평생교육 관계자들 간 서로 소통·교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특히, 평생교육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대회를 통해 우수 강사 및 프로그램 발표와 시상 진행되어 경남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수강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됐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거제, 아동·청소년·여성안전지역연대의 날 개최

고현동, 상문동, 아주동 안전지역 우수 아동·청소년·여성인권지킴이단 운영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안전지역연대는 지난 12일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폭력NO, 관심ON'이라는 주제로 2019년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안전지역연대의 날을 개최했다.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안전지역연대는 거제시 조례에 따라 경찰, 보건소,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법률전문기관, 여성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 13개 기관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관 협력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여성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거제시청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우수 지킴이단 시상과 유공자 표창, 폭력예방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옥덕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거제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거제/최만식 기자

경북을 이어가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경북에서 당신이 이어나갈 여덟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당신만의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세요.

경북을 잇다 HiStory 경북

장흥군,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100% 선정

총 사업비 281억 투입, 어촌 필수기반시설 현대화 지역 특성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 적극 추진

장흥군은 해양수산부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 관산 우산항과 회진 신상·신기항, 회진 대리항 3개소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81억 원(국비 70%, 지방비 등 30%)이 투입돼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관산 우산항은 총사업비 98억 원

이 투입돼 방파제 연장 등 어항시설을 정비하며 정남진 전망대 인근에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수산물 직판장 포함), 요트계류장 조성 등 사업이 추진된다. 회진 신상·신기항은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해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수산물공동작업장 등 수산기반시설 조성과, 다목적회관을 리모델링해 어린이놀이시설과 도서관 등을 조성한다.

회진 대리항은 지역주민과 대리항 방문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차로 정비와 낚시공원 내 데크시설, 어항시설 정비, 해조류간이공사시설, 바지락어장진입로 등 사업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발전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으로 전체 사업비 중 70%가 국비로 지원된다. 장흥군은 지난해 회진면 노력항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신청한 3개소

가 모두 선정됨에 따라 낙후된 어촌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은 사업 공모 기간 내에 자체 주민역량강화교육 실시와 전문가를 통한 공모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면밀한 준비를 실시해 왔다. 정종순 군수는 “어항시설 현대화를 통한 어항기능 복원, 어촌 환경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새로운 소득 창출로 어민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도 예정된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홍/김정길 기자**

구례군,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장려상



지방정부와 주민 간 소통의 창 마련 정보의 신뢰성 부분 높은 평가 받아

구례군은 '제2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회계 투명성과 재정운용 효율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였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국민들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재무 보고를 하는 지자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주민

간 소통의 창을 마련하고 정책만족도를 높여 지방분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는 데 힘을 보태고자 제정했다. 이번 회계대상은 진년 전(前)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최종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배국환 재정성과연구원 이사장 등을 비롯하여 각계 회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이번평가는 재정 평가의 지표였던 재정자립도나 건정성 위주였던 평가가 아닌 지자체의 재무 보고 책임에 초점을 맞춰 평가가 이루어졌다. **구례/이용만 기자**

구례군은 회계담당 공무원과 결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정보의 신뢰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결산서의 작성상태, 결산감사의견서의 지속 공시, 재정 공시자료 접근 용이성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거두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임국환 재무과장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됐는지 함께 공유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재정 운용과 주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평양/이남출 기자**

광양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 책자 배포·적극적 홍보

광양시는 지역 중소기업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생산제품 안내책자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 책자는 광양시 제조업체 551개사를 중심으로 정부와 전남도가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전남도 유망중소기업, 전남형 강소기업 등으로 구분해 해당 기업별로 주요 생산제품을 안내해 시각적인 효과를 높였다. 또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 우수기업 기본정보와 기업 추구가치 등을 담은 업체소개, 생산제품 특성, 사진 자료 등을 수록했다. 더불어 기업지원 주요시책 소개는 물론 광양시 산업단지 조성 등 기본현황과 구경구미 등 관광 볼거리, 먹거리 등 광양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료로 알차게 구성했다. 시는 발간책자를 전국 공공기관과 도내를 비롯해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을 올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양/이남출 기자**

여수시, 전남도 경관행정평가 우수기관 선정



'남산동 경관개선사업' 높게 평가 기관 표창, 포상금 500만원 받아

여수시가 최근 전남도 주관 2019년 시·군 경관행정 업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전남도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행정 우수 사례를 3개 분야 7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남산동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원 다변화를 이뤘다. 사업 구간의 노후 주택 지붕과 벽체를 화사하고 산뜻한 오렌지 계열 4가지 색상으로 꾸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에는 '이순신의 역사가 흐르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만들기'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공공디자인에 주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담았다. 시 관계자는 “관광 도시 여수가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관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이남출 기자**

담양군 '두발로 죽죽(竹竹) 평가대회'



'남산동 경관개선사업' 높게 평가 기관 표창, 포상금 500만원 받아

여수시가 최근 전남도 주관 2019년 시·군 경관행정 업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전남도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행정 우수 사례를 3개 분야 7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남산동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원 다변화를 이뤘다. 사업 구간의 노후 주택 지붕과 벽체를 화사하고 산뜻한 오렌지 계열 4가지 색상으로 꾸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에는 '이순신의 역사가 흐르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만들기'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공공디자인에 주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담았다. 시 관계자는 “관광 도시 여수가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관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이남출 기자**

영광 칠산바다 노을 안방서 감상하세요

'실시간 영상' 홈페이지에서 제공 노을전시관과 칠산타워에서 촬영

영광군은 칠산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실시간 칠산바다 영상' 서비스를 군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영상은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과 염산 향화도 칠산타워 뷰포인트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그림 같은 바다 경치와 일몰시간의 아름다운 낙조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열릴 염산 향화도와 무안해제를 잇는 칠산대교 개통을 앞두고 실시간 영상을 통해 드넓은 칠산

바다와 칠산대교를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군 관계자는 “영광에서만 볼 수 있는 칠산바다의 비경이 실시간 영상 서비스를 통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찾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알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영광군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백수해안도로 오랜 역사와 이야기가 간직한 불갑사, 영광만의 특색 있는 4대 종교문화유적지 등 대표 관광지를 구석구석 촬영한 항공영상과 동영상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영광/김영만 기자**

여수시, SNS 서포터즈 24일까지 모집



20명 내의 선발... 축제·행사 등 시정소식 홍보, 재난 상황 전파

여수시는 오는 24일까지 제5기 SNS 서포터즈 20명 내외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토티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 중인 여수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5기 SNS 서포터즈는 내년 1년 동안 여수시 축제와 행사, 재난 상황 등 다양한 지역 이야기를 국내외에 알린다. 활동에 따라 원고료, 표창 등 인센티브를 받고, 영상 촬영과 편집, 팸투어 등 교육·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여수/이남출 기자**

참여 희망자는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www.yeos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pds011@korea.kr)로 전송하면 된다. 여수시 시민공감담당관 SNS소통팀(☎061-659-3488)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에 대한 애정과 열정,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면서 “SNS 서포터즈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SNS 소통 창구로 페이스북, 카카오토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토티플러스친구에서 '여수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이남출 기자**

보성군, LPG 판매사업자 간담회 개최

지역간 가격 불균형 해소 방안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방법 적극 홍보

보성군은 최근 전남가스판매협회 보성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가정용 LPG가스 가격 안정화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LPG 가격 불균형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보성군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또한, 겨울철 LPG 가스 안전사고

사전예방 방법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가스 사용 지도를 통해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가스판매협회 보성지회는 보성을 2개소, 벌교읍 6개소 등 총 14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보성군은 가스사고가 많은 겨울철 LPG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LPG가스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이용만 기자**

영광군, 논 타작물 재배 농가 보조금 지급

쌀가격 안정 위해 참여농가 대상 지원사업에 512농가 380ha 재배

영광군은 2019년 쌀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는 512농가가 참여해 380ha에 타작물을 재배했으며 군은 ha당 조사료 500만 원, 일반·꽃겨름작물 420만

원, 두류 350만 원, 휴경 280만 원으로 총 15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쌀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비 3억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정부지원 내시액보다 ha당 조사료 70만 원, 일반·꽃겨름작물 80만 원, 두류 25만 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농업생계 불안 해소에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김영만 기자**

화순군, 소득기술 분야 시범사업 평가회

'기능성 다점 보온케튼 기술 시범' 등 시범사업 농가 30여명 참석 '호응' 커

화순군은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농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기술 분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기능성 다점 보온케튼 기술 시범' 등 올 한 해 추진한 4개 분야 13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단동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대규모 하우스의 전 유물이었던 스마트팜을 소규모 하우스

스에도 보급해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미교란제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 사업'은 복숭아 재배 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인 복숭아순나방 등의 발생을 억제해 방제 횟수를 30% 줄이는 효과를 얻어 농가에 호평을 받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평가회로 사업 성과를 농가가 직접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화순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영만 기자**

책 읽는 도시 전주의 대표 책 축제, 만족도 높아



한옥마을서 '당신을 쓰세요' 책과 독서문화 축제 펼쳐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이고 연인원 10만명 방문객 유치

국가대표 책 읽는 도시 전주의 대표 책 축제인 전주독서대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17일 전주시립도서관 세미나실에서 '2019 전주독서대전'의 축제 성과를 되짚어보기 위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전주향교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당신을 쓰세요'를 주제로 책과 독서문화 축제로 펼쳐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올해 전주독서대전에 참여한 추진협의체 위원과 실무기획단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개최 결과 및 평가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위원들은 올해 전주독서대전이 123개 공공기관과

독서생태계 기관 등이 참여해 15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연인원 1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가 행사기간 동안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올해 전주독서대전에 참가한 방문객 587명과 부스 참가업체 38명 등 총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시설 편의성 행사장 진행요원 프로그램 전반 평가 행사 만족도 지속성과 가치 평가 등 5

개 항목에서 평균 83.8% 이상이 '만족한다'로 응답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과 참가업체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여부 전주시 위상·독서문화 활성화·독서생태계 활성화 기여도를 묻는 전주독서대전 지속성과 가치 분석 부분에서는 87.9% 이상이 적극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단, 참석위원들은 이날 행사의 발전과 전주독서대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주차시설 불편과 편의시설 확충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을 개선사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독서진흥과 독서문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지역 내 출판·독서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추진협의체와 실무기획단을 발족하고 연중 독서프로그램 개발과 독서대전 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회의 추진협의체 회의와 6회의 실무기획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전주독서대전은 '대한민국 책의 도시'의 전주시와 도시의 주인인 전주 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창출했다"며 "인문학 도시로서 도시 전반에 걸쳐 독서문화 창달과 독서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김승일 기자

"산타가 나타났다"... 여수시 산타원정대 행사 '훈훈'

사회배려계층 아동 소원 100개 이뤄져
권오봉 시장 등 산타로 변신 선물 증정

여수시는 최근 삼해원 대강당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본부장 최영철)과 함께 '여수 산타원정대' 행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최영철 본부장, 윤명훈 LG화학(주) 주재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후원증서 전달, 선물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산타원정대는 지역 기관과 기업,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저소득가정이나 복지 위기가구 아동의 소원을 이뤄주는 어린이재단의 사업이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1일 산타로 변신해 사회배려계층 아동의 소원 100개를 이뤄냈다.

시는 앞서 사회복지법인 삼해원

과 여수보육원에서 소원카드를 받아 운동화, 옷, 장난감 등 각종 선물을 마련했다.

LG화학(주재임원 윤명훈), 한국남동발전(주)여수발전본부(본부장 이동렬), LGMMA(공장장 김창호), 휴켄스(주)(공장장 박경배), 프레스에어코리아(공장장 김경남), 어린이재단 여수후원회는 아동들을 위해 1200여만 원을 후원했다.

신정일 어린이재단 여수후원회 회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시장은 "여수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교육과 취업이 순환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남출 기자

화순 농주 정보화마을 '우수 마을'로 선정

역량강화 노력도, 상품개발·홍보 등
모든 지표서 고르게 높은 점수 받아

화순군은 최근 농주 정보화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우수 마을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런 평가에서 농주 정보화마을은 자립운영 노력도, 역량강화 노력도, 상품 개발, 홍보, 정보격차 해소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에 관한 공로로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정보화 마을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348개 마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주 정보화마을은 더덕, 복숭아 등의 지역 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난해 목표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특산물 판매를 통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순/김영안 기자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전국 최초 지정

공신력과 전문적인 목공예 교육 나서
목공체험지도사 2·3급 자격시험 진행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지정하는 목재교육센터 '장흥 목공지역교육원'으로 지정됐다.

'장흥 목공지역교육원'에서는 목공체험지도사 2·3급 교육 및 자격시험을 진행하며, 시험에 최종 합격한 교육생에게는 관련 자격증이 발급된다.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과정의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을 진행하여 62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목공예 교육과 목재문화발전에 힘써 왔다.

이번 목재교육센터 '장흥 목공지역교육원' 지정 확정에 힘입어 공신력 있고 전문적인 목공예 교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오는 2020년부터는 목공체험지도사



2·3급 교육과 목공예기능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역 목재문화 활성화를 거점으로 목재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

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권 인적자원 육성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장길 기자

담양, 노인일자리 사업 종료



담양 가사문화원은 최근 장원관에서 참여자 21명을 모시고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른 참여자 위안잔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참여자 노래자랑과 레크리에이션, 준비한 음식과 함께 진행한 잔치에 참여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어르신들은 춤을 추며 흥겹게 행사를 즐겼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면에서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말했다.

정선미 면장은 "올 한해 고생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항상 만수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오홍근 기자

순천시 '전남도 저출산 극복 종합평가' 선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우수
지자체 우수상 이어 올리는 최우수상

순천시는 최근 목포 상그리아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전라남도 저출산 극복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 종합평가'는 전남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추진해 온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시책사업,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사업추진도 및 노력도 등 7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순천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로가 높고 평가 받아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리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순천시는 임신 전 예비부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산제 3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모에게는 2개월분의 비타민D제를 지원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맞는 출산장려 사업을 발굴해 시민체감형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김영안 기자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농어촌

KF 한국농어촌공사

생명산업의 뿌리, 농어촌용수
물길이 생명길입니다

국토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
건강한 물순환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국토의 물길을 관리하는 것은 인체의 혈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물려주는 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영주시, (주)베어링아트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



관내 기업과 함께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노후연탄보일러 교체·화장실 보수 등 추진

(주)베어링아트 임직원봉사단이 최근 관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에 두 팔 걷고 나섰다. 평소 지역민에 대한 특별한 애정

으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베어링아트에서 추운겨울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수리업체와 함께 힘

을 모았다. 봉사단은 장수면 반구리 정 모씨(36·여) 가구 노후연탄보일러 교체 및 화장실보수, 호문리 김 모씨(46·여) 덕 도배·장판 교체, 소룡리 허 모씨(47·여) 덕에 연탄보일러 설치 및 창호 교체 등 총 600여만 원을 들여 3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안윤근 장수면장은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 말했다. (주)베어링아트 관계자는 “추운 겨울,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되기 쉬운 사회취약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오산시, 어르신께 보행기 전달

경기 오산시 세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관내 저소득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보행기 및 보행기와 실내용지팡이를 각각 5대씩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행기지원사업 ‘두발 더하기 네 발’은 세마동 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를 지원해 외출과 거동을 돕는 실버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상용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세마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취약계층에 희망을 주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이승배 기자

광명시, 익명의 독지가 라면 100박스 기부

마음 맞는 13명 지인들과 결성
매년 후원물품 지역사회에 기부



경기 광명시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광명시에 거주하는 한 독지가가 라면 100박스(1박스당 30개입)를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독지가는 소외계층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자, 마음이 맞는 13명의 지인들과 모임을 결성하여 매년 후원물품을 지역사회에 기부해오고 있다.

이날 전달받은 라면은 추운 겨울,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하는 40~50대 청장년 단독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용진 하안3동장은 “우리 동네 장애가 있거나, 가족과 단절되어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어려운 이

웃들이 많은데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분들의 진심어린 마음까지 고스란히 라면박스에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안3동은 지난 10일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고 있다. 광남새마을금고 20kg 쌀 10포 후원, 김재일 주민자치위원장 20kg 쌀 2포 후원 등 하안3동에는 연말을 맞아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명/남시현 기자

광양시 광영동청년회, 바자회 수익금 후원

창립 30주년 기념 불우이웃돕기 나서
독거노인 등 도움 필요한 이웃에 전달

광양시 광영동청년회는 최근 동절기를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kg 50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물품은 광영동청년회 창립 30주년 기념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광영동청년회는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 캠페인과 지역 내 병원과 함께하는 경로 나눔의료봉사로 재능기부를

하는 등 우리동네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병권 신임회장은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되는 광영동청년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단결된 모습으로 청년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인정과 봉사의 손길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병주 광영동장은 “뜻있는 청년들이 모쳐 광영동을 위해 힘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후원물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영만 기자

무궁화복지월드, 연천군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소외계층 저소득가정 위해 쾌척
아동 도서 350권도 구입해 전달

무궁화복지월드는 최근 경기 연천군청을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 및 저소득가정을 위해 서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금년 6월에는 ‘무궁화 책날개 운동’의 일환으로 아동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추천받아 구입해 관내 지역 아동센터 3개소에 350여 권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연천군 지역사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무궁화복지월드 손근석 경기6 방면

장은 “연천군 관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실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가정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군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해주고 꾸준히 후원성금을 기탁해 주신 무궁화복지월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김영근 기자

포천시, 어려운 이웃 위해 라면 70박스 기탁

영중면 주민 서궁정 씨 직접 방문
나눔 몸소 실천, 지역이웃에 귀감



경기 포천시 영중면에 거주하는 서궁정 씨는 최근 영중면에 방문해 관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라면 70박스를 영중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서궁정 씨는 “나눔을 통해 살기 좋은 영중면을 만들고 싶어 몸소 실천하고 있다”며 이웃돕기의 뜻을 밝혔다. 서궁정씨는 해마다 12월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라면 기탁을 통해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이웃돕기에 동참해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정동주 면장은 “추운 겨울 매년 변함없이 따뜻한 이웃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영중면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및 홀몸어르신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포천/김영근 기자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금 전달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넌 잇기에 기부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따뜻한 사회구현

경기 의정부시 흥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70만 원을 의정부범시민 사랑 나눔 운동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넌 잇기에 기부했다.

흥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나눔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행복나눔 원스톱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생신축하를 드리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면서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의정부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영주 회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그분들께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은옥 복지지원과장은 “평상시에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함께 나누는 따뜻한 흥선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안산시, 은행열매 1.8톤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시민들과 함께 나눔 실천 노력

경기 안산시는 도심 곳곳에서 채취한 은행나무 열매 1,800kg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시청 현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최태욱 상록구노인지회장, 민병중 단원구노인지회장, 노인지회 임원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시는 지난 9월 26일부터 2개월 동안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상가 앞 등 은행열매 약취로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1,187주의 은행나무에

서 열매를 집중적으로 조기 채취해 약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했다.

이렇게 채취한 은행열매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의 남·카드늄 등 중금속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적합 결과에 따라 열매 외피 탈피와 건조과정을 거쳐 1,800kg를 수확, 상록구·단원구노인지회에 900kg씩 나눠 기부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에 귀 기울여 이를 적극 개선하고 시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산/이승배 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사장: 김영근 / 편집국장: 정재두

서울본사 : (우 08639)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동) 시흥유통상가 12동 106호

경기본사 : (우 14220) 경기 광명시 오리로 970 크로앙스 (광명동) 2층 201호

대표전화 : 1899-9659

2009년 4월 20일 창간

편집국 : 02-2612-2959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 경기, 가50079

이메일 : ekwk44@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sujin004344@hanmail.net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좋은사람들의
평화도시

Hi 연천

DMZ 청정 연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남토복수
연천군수인증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천군수가 인증**

명품 브랜드로서
품질의 우수성 보증

북쪽의 깨끗한 물과 남쪽의 비옥한 토지에서 정성들여 생산된
청정지역 우수 농/특산물

연천군

독도, 일본주장 왜 허위인가? II

“독도, 일제강점과 관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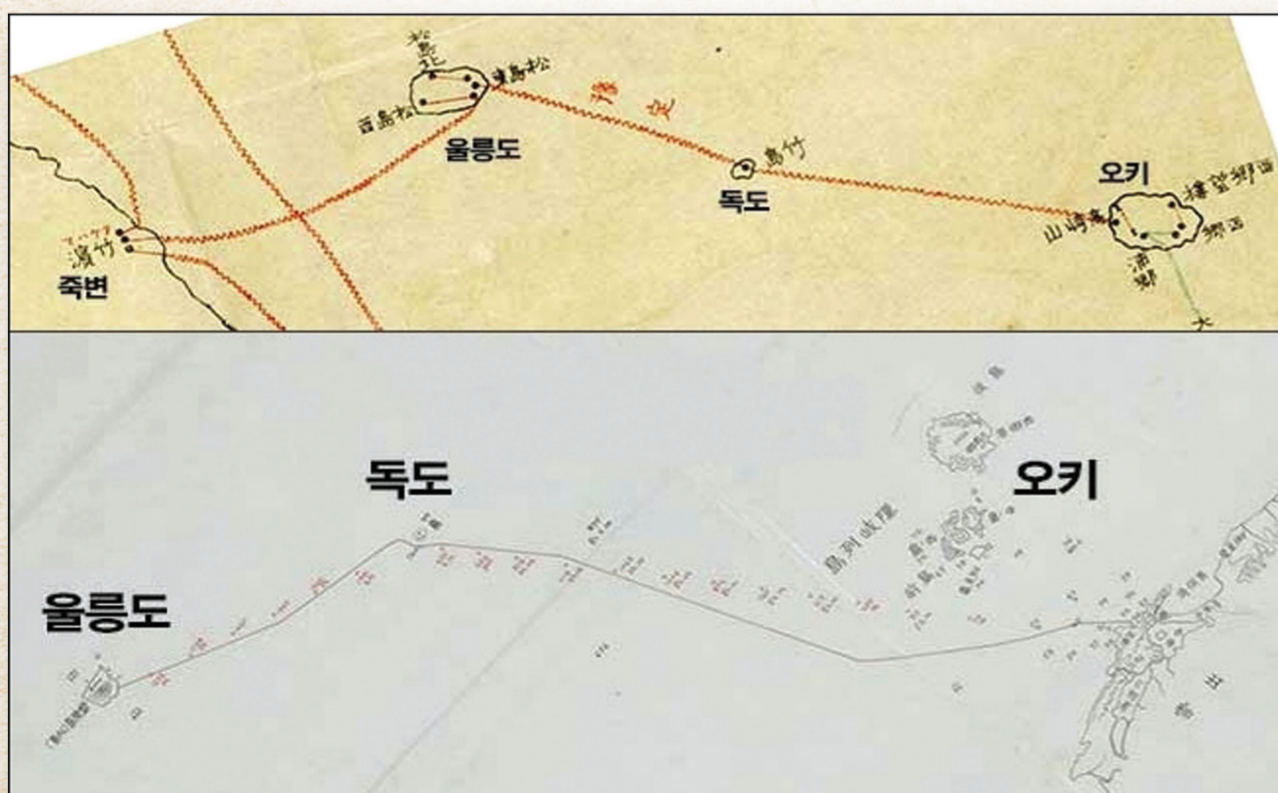
독도가 일본 침략

첫 희생물이 된 경위는 이렇다



독도 가설 망루건설물 배치도

※망루는 현 독도경비대 막사, 감시소는 현 독도 등대자리



해저전선 부설도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로 한다. 일본 해군은 1904년 9월, 1905년 1월과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군함을 보내 독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러시아 군함이 독도 부근에 표박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일본 해군은 7월 25일에 망루 공사를 시작해 8월 19일부터 망루를 가동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독도-오기(隱岐)를 잇는 해저 통신케이블 부설공사를 추진했으며, 독도에는 관측병 등 4명의 군인이 체류했다. 시마네현은 망루 설치 과정에서 강치잡이업자 나카이 요사부로를 앞세워 독도를 무단 편입했다. 망루요원은 러일전쟁 종전 후 10월 24일 철수했으며, 해저케이블은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운용되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이미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의정서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기(隨機)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